

程朱學傳來와 麗末漢文學

- | | |
|--------------------------|-----------------------|
| I. 序 言 | 1. 民俗歌謠에 대한 새로운
認識 |
| II. 高麗儒學의 性格 | 2. 忠孝烈思想의 深化 |
| III. 安珣 白頭正과 程朱學 傳來 | 3. 濂洛風 詩의 出現 |
| IV. 程朱學 傳來 以後의 麗末漢
文學 | V. 結 語 |

李 炳 赫*

I. 序 言

文學은 그 시대의 반영이라 하듯이 어느 시대의 문학이라도 그 시대와 완전히 떨어져서 무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高麗時代의 漢文學도 그 시대의 변천에 따라 특성이 나타날 것이다. 필자는 이 특성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본 적이 있다.

初期, 4代 光宗 9년부터 毅宗 24년(958~1170)까지 이 시기는 고려 國基가 다져가고 科擧制度가 定着되면서 그 試驗科目인 詩·賦·頌·策 등에 힘을 기울이게 되고, 다음 中期로 明宗 1년부터 元宗 15년(1171~1274)까지 武人의 執權으로 文臣들이 山野에 숨게 되어 '竹高七賢'과 같은 모임이 결성되면서 佛敎와 관계가 깊은 蘇東坡의 문학을 숭상하게 되었으며, 끝으로 末期인 25代 忠烈王 1년부터 恭讓王 4년(1275~1392)까지는 程朱學이 들어오면서 思想的인 면에서는 儒·佛의 交替, 文學的인 면에서는 詞章派의 경향에서 性理學的인 경향의 문학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 부산대 사대 조교수

그런데 근자에 와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朱子學 程朱學 道學 性理學 등의 말에 개념상 구분도 없이 混用하고 있는 듯하고, 安珦과 白頤正 중 누가 먼저 程朱學을 傳來했는가 하는 것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듯하며, 安珦이나 白頤正이라 하면 의례히 순수한 性理學者 또는 道學者로 취급하고 있는 글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程朱學이 들어오기 전과, 그 후의 고려 한문학의 사상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高麗儒學의 일반적인 성격과 安珦 白頤正의 程朱學 傳來 過程을 살펴보고, 이러한 思想的 배경 위에서 형성된 麗末漢文學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II. 高麗儒學의 性格

儒敎의 「儒」字는 본래 「需」와 「人」의 合字로 社會에 需用되는 人材를 의미했다고 한다. “儒란 말은 優이며 和이니 능히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능히 사람을 복종시킨다”¹⁾는 말을 보더라도 儒는 政治的인 指導者를 의미한 것인 듯하다. 더우기 漢書藝文志에 「儒家의 類는 司徒官에서 나왔다. 임금을 도와 陰陽을 순하게 하고 敎化를 밝히는 것이다. 六經을 공부하고 仁義에 留意하여 堯舜의 道를 서술하고 文王 武王을 법을 삼으며 仲尼를 스승으로 받들어 그 말을 존중하게 여기는 것이니, 道에 있어서 가장 높은 것이 된다.»²⁾ 라는 말을 보면 儒家는 司徒라는 敎官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역시 漢書儒林傳에는 「옛날의 儒는 六藝의 글을 博學하는 것이니 六藝는 王敎의 典籍으로 先聖이 이로써 天道를 밝히며 人倫을 바르게 하여 至治의 成法을 이루는 것이다.»³⁾ 라는 것과 같이 儒는 「明天道 正人倫」하여 政治的인 至治를 理想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후세에 오면서 儒敎라 하면 일반적으로 孔子의 道를 받드는 것을 의미하고 儒學이라 하면 「儒者의 學」 즉 儒敎를 연구하는 학문의 뜻으로 쓰인다. 司馬遷

1) 「禮記」 儒行釋文

2) 「漢書藝文誌」 第10

3) 「漢書」 儒林傳 第58

의 史記에도 儒學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고 新唐書 元史等에도 儒學傳을 따로 두고 있다. 여기에 다시 道學이라 하면 宋儒의 性理學을 의미하는 것으로 宋史에도 「道學之名 古無是名也」라 하면서 道學傳을 따로 두고 있다. 그런데 性理學이라 하면 性命理氣之學으로 때로는 理學 또는 道學이라고도 하나, 中庸의 「하늘이 命해 준 것을 性이라 하고 性에 따르는 것을 道라 하고 道를 닦는 것을 教라 한다.」⁴⁾는 말과 같이 道는 「當行之路」와 같은 뜻으로 日用事物之間에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道學이라는 뜻도 단순히 性理學뿐만 아니라, 知와 行 중에서 行을 전제로 하고 知를 닦는 것, 즉 行動의 면에 역점을 둔 의미가 될 것이다. 修己와 治人으로 나누어 볼 때 道學이라 하면 治人 쪽의 뜻이 강하다면 性理學이라고 하면 修己 쪽의 뜻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高麗時代의 儒教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을까. 成樂熏教授는 우리나라 儒教를 ① 基本儒教 ② 文學儒教 ③ 教化儒教 ④ 士類儒教, ⑤ 道學儒教 ⑥ 性理儒教 ⑦ 黨爭儒教 ⑧ 空論儒教 ⑨ 行世儒教 ⑩ 實用儒教⁵⁾ 등으로 나누고, 「新羅末期에서 高麗末期까지의 儒教를 文學儒教라고 부른다.」라 하고, 이어 「이 文學들이 모두 儒教인들이 儒教의 五經과 史書를 읽어서 된 것이므로 이것을 文學儒教라 한다.」라고 고려시대의 儒教의 성격을 밝혀 놓았다. 그런데 基本儒教가 孔子와 그 門徒를 중심으로 政治에 應用되는 仁義禮樂을 증시하는 것이라면 高麗의 儒教는 단순히 文學儒教로만 규정짓기 어려운 것이다. 高麗時代에는 程朱學 傳來 이전에는 基本儒教의인 성격과 文學儒學的인 성격이 농후하지마는 程朱學 傳來 이후부터는 그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高麗太祖의 建國 후 崔凝 王儒 崔知夢 등 儒學者를 등용하여 文物制度의 터전을 닦은 것은 역시 기본유교적인 성격이요, 제 4대 光宗시대는 科擧 실시 후 文學이 성행했으나 百官의 衣服을 華制에 따르는 등 기본유교에 입각한 제도정비라고 할 수 있으며, 제 6대 成宗朝에는 崔承老의 上書

4) 中庸 第1章

5) 成樂熏, 韓國儒教思想史(韓國文化史大系 VI,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70), pp. 921—951.

중에 儒敎를 행하는 것은 治國의 근본이라 했고,⁶⁾ 成宗 2년에는 博士 任成老가 宋에서 돌아오면서 太廟堂圖 社稷堂圖 文宣王廟圖 祭器圖 七十二賢贊記 등을 가져오고, 11년에는 下敎하여 王者가 天下를 敎化함에는 학교를 세워 堯舜의 風敎를 祖述하고 周公 孔子의 道를 닦아야 한다고 했다.⁷⁾ 또 西京에 修書院을 두고 開城에 國子監을 創設하는 일들은 모두 爲政者로서 基本儒敎에 입각한 처사라고 할 것이다. 11대 文宗은 國子監에 가서 「仲尼는 百王의 스승이니 어찌 존경하지 않으랴.⁸⁾」고 하면서 再拜한 것도 모두 基本유교적인 성격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睿宗 仁宗을 거쳐 武人執權期가 되면서 華美한 文詞가 더욱 발달되고 竹高七賢의 모임이 결성되면서 고려 한문학은 꽃을 피우게 된다. 그 중에서도 高宗 38년(1251)에는 江華 花山洞에 國子監을 新築하고 孔子의 眞像을 奉安하여 戰時에도 敎育을 위해 國子監의 면모를 갖춘 일도 있지만 이 시기에 文學儒敎의인 경향이 보인다. 그러므로 高麗 初期는 建國 후 文物制度의 정비로 基本유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中期로 오면서 文學儒敎의인 경향을 보이다가, 忠烈王朝 程朱學이 傳來하면서 程朱學의 성격을 띠었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서 程朱學 傳來 過程을 살펴보기로 한다.

Ⅲ. 安珣 白頤正라 程朱學 傳來

高麗朝에서 程朱學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安珣이나 白頤正이나 하는 것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을 正史인 高麗史 列傳에 보면 安珣에 대해서는 學校 振興에 관한 것과 朱子에 대한 景慕한 사실만 기록되어 있다.

- ① 安珣이 學校가 날로 쇠퇴해가는 것을 보고 兩府에 의논하여 宰相의 직임은 인재를 교육시킴이 급선무인데 지금 養賢庫가 탄갈되었으니 六品 이상은 각각 銀 1斤, 七品 이하는 布를 차이 있게 내어 양현교에 헌납하고 본전은 두고 利

6) 「高麗史」列傳 第6 崔承老

7) 「高麗史」成宗世宗 十一年

8) 「高麗史」文宗世家 十五年

息으로 贍學錢을 하게 했다.

(安軸 優學校日衰 議兩府曰 宰相之職 莫先於教育人材 今養賢庫殫竭 無以養士 請令六品以上 各出銀一斤 七品以下 出布有差 歸之庫 存本取息 爲贍學錢; 高麗史 列傳 安軸)

② 언제나 興學과 養賢으로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
(常以興學養賢 爲己任. 高麗史 列傳 18 安軸)

위의 것은 高麗史 列傳에 나타나 있는 그의 教育 사업에 관한 기록의 전부이고, 그의 朱子の 景慕에 대한 기록으로는

만년에 늘 朱子の 眞像을 걸어두고 景慕하며 드디어 자신의 號를 「晦軒」이라 했다.

(晚年 常掛晦菴先生眞 以致景慕 遂號晦軒; 高麗史 列傳 18 安軸)

이와 같이, 朱子에 대한 景慕한 사실만 기록되어 있지 朱子學의 傳來에 대해서는 조금도 言及이 없다. 뿐만 아니라, 「忠肅王 6년에 文廟에 從祀할 것을 論議하에 安軸이 비록 건의하여 贍學錢을 두었으나 어찌 이 일로 從祀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이가 있었으나, 그 門生 辛藏이 힘껏 청하므로 마침내 종사했다」⁹⁾ 고 한다. 이러한 史料들을 검토해 볼 때 朱子에 대해서 景慕한 사실만 나타나 있지 朱子學 또는 性理學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찾아볼 수 없다. 이 기록뿐만 아니라 益齋 李齊賢도 「大德末에 安文成公 軸이 宰相이 되어서 國學을 수리하고 庠序를 고쳐 李晟 秋適 崔元冲 등을 등용하여 經書 하나에 두 사람의 교수를 두었다.」¹⁰⁾라고 하여 학교 교육에 힘썼다는 기록만 보인다. 더욱기 이상한 것은 權近의 東賢事略의 24명 중에 安軸 같은 분도 기록하면서 安軸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¹¹⁾ 또 安軸이 지은 安軸의 아들인 安于器의 墓誌銘에서도 「文成公이 儒學을 中興시킨 큰 功이 있어 夫子廟에 제향을 받는다.」¹²⁾ 라고 하고 忠肅王 5년 2월에 文廟에 圖形할 때도 學校를 설치한 공이 있다고

9) 「高麗史」列傳 第18 安軸

10) 李齊賢, 「樸翁稗說」前集二

11) 權近, 「陽村先生文集」卷 35 東賢事略

12) 安軸, 「讀齋集」卷 3 上護軍安公墓誌銘

만 했을 뿐, 朱子學이나 性理學 傳來에 대해서는言及이 없다.¹³⁾ 거기다가 安珦이 文廟에 從祀한 것을 栗谷은, 薛聰 崔致遠 安裕는 斯道에 도움을 주지 못했으니, 이 세 사람을 文廟에 配享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다.¹⁴⁾ 이와 같이 高麗史 樸翁稗說 李栗谷 등 신빙성 있는 문헌에는 모두 安珦의 朱子學 傳來에 대한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다. 이와 반대로 白頤正에 관한 기록으로는

그때 程朱學이 中國에 처음으로 행했으나 東方에 미치지 못했다. 白頤正이 元나라에 있으면서 그것을 배워 동쪽으로 돌아오니 李齊賢·朴忠佐가 제일 먼저 師受했다.

(時程朱之學 始行中國 未及東方 頤正在元 得而學之 東還 李齊賢·朴忠佐 首先 師受; 高麗史 列傳 19 白頤正)

위의 文獻을 통해서 보면 程朱學은 白頤正이 처음 傳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더욱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위에서 인용한 樸翁稗說에서 安珦은 學校 振興에 대한 공로만 말하고 이어서 「그 후에 白頤正이 忠宣王을 따라 元都에 10년간 머물면서 程朱의 性理書를 많이 구해 돌아왔고 나의 장인 菊齋 權公이 四書集註를 구해서 판을 새겨 널리 전하니 배우는 자들이 다시 道學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¹⁵⁾」고 했다. 이 글에서 「다시 道學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又知有道學矣)는 句節에 유의하여 보면 安珦이 學校를 振興시키고 여기에 다시 白頤正이 程朱 性理學을 가져와, 權溥를 거쳐 學者가 道學을 알았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高麗史 白頤正 列傳과도 같을 뿐만 아니라, 益齋年譜 28세(1314)에도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상의 文獻으로는 性理學이나 道學이란 말은 安珦의 기록에는 보이지 않고, 白頤正의 기록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程朱學을 누가 처음으로 전했는가 하는 것은 自明해질 것 같다.

13) 晦軒先生年譜(硯山本)

14) 栗谷, 經筵日記

15) 李齊賢, 「樸翁稗說」前集二.

그러나 이 기록뿐만 아니라 훨씬 후대에 간행된 것이기는 하나 安珦의 實記에 그의 朱子學 傳來에 관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문제는 달라진다. 安珦의 實記는 1次 「道東本實記」 1권 英祖 39년(1763), 2次 「實記」 및 「年譜」 1권 純祖 16년(1816), 3次 「學館本實記」 또는 「太學本實記」 3권 高宗 20년(1883), 4次 「硯山本實記」 4권 純宗 3년(1909), 5次 「安子年譜」 1권으로 1915년에 간행되었다. 다음에 白頤正의 行狀과 安珦의 實記를 중심으로 程朱學 傳來에 관계되는 부분만 간추려 표를 만들어 보면 <表 1>과 같다.

이와 같이 安珦의 1次 入元은 忠烈王 15년(1289) 11月 壬子(7日)日이고, 돌아온 것은 다음 해인 忠烈王 16년(1290) 3月 丁未(4日)日이니 약 4개월의 留元 끝에 돌아온 것이다. 이 때 4次 刊行的 實記에는 「錄晦菴朱夫子書 並畫其眞像以歸」라 했고, 5次 刊行 때는 「留燕京手抄朱子書 又摹寫孔子朱子眞像」이라고 했다. 이 기록은 우리 나라 최초의 朱子學 傳來에 대한 기록이다. 이 기록을 토대로 해서 보면 당시에 朱子書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錄」 또는 「抄」해 온 것이지 朱子全書가 다 온 것은 아니다.

다음 2次로 元나라에 간 것은 1次 元나라에 다녀온 8년 후인 것이다. 忠烈王 24년(1298) 安珦은 56세, 白頤正은 52세로 각각의 기록에 모두 이 해 8월에 元나라에 갔다는 것으로 미루어, 두 분이 함께 元나라에 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때 元나라에서 돌아온 기간은 모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세히 알 길은 없으나, 安珦은 「未幾還國」이라는 것으로 보아 곧 還國한 것을 알 수 있고, 白頤正은 「留都下十年」이라고만 했지 돌아온 年月日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忠宣王을 따라 元나라에 갔으니 돌아올 때도 忠宣王을 따라 忠宣王 元年(1309)에 還國한 것이 아닌가 추정할 뿐이다. 그러면 白頤正의 留元 기간은 12년간이 된다. 이 당시 歸國 때 程朱性理書를 많이 구해왔다고 한다.

安珦은 48세 때 元나라에서 돌아올 때 「手抄朱子書」, 61세 때 「購朱子新書」라는 朱子書 傳來的 연대가 기록되어 있고, 56세 때는 元나라 學官과

〈表 1〉

安 珣		西 紀	干 支	王 朝	白 頤		備 考
行 蹟	나 이				나 이	行 蹟	
	1세	1243	癸卯	高宗 30			朱子歿後 43년
	5세	1247	丁未	34	1세 (9月28日)		朱子歿後 47년
	42세	1284	甲申	忠烈 10	38세	10月登第(權胆掌議)	
十一月壬子 從王如元	47세	1289	己丑	15	43세		朱子歿後 90년
三月丁未 還自元 錄晦菴朱夫子書 並畫其眞像以歸 築精舍(?)	48세	1290	庚寅	16	44세		
	55세	1297	丁酉	23	51세		
八月…從忠宣王如元	56세	1298	戊戌	24	52세	八月…如元	朱子歿後 98년
二月獻宅于朝	59세	1301	辛丑	27	55세		
購朱子新書	61세	1303	癸卯	29	57세		朱子歿後103년
五月置贍學錢	62세	1304	甲辰	30	58세		
安珣別세	64세	1306	丙午	32	60세		
		1309	己酉	忠宣 1	62세	忠宣還國 때 白頤正歸國(?)	朱子歿後109년
		1314	甲寅	忠肅 1	68세		李齊賢 28세
		1323	癸亥	10	77세	12月 白頤正 별세	

性理說辯論, 62세 때는 安珦의 儒風振興으로 해서 「皆知有道學」이라 했으며, 그 외에도 朱子에 대한 景慕, 「先生自少 好性理學」 등 많은 기록들이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도 言及했다시피 白頤正의 기록은 모두 麗末·鮮初의 기록인데 비하여 安珦의 기록은 훨씬 후대, 즉 英祖 이후의 기록인데다가 家乘類에 토도를 두고 만든 實記였다는 데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 더욱이 晦軒實記와 芝峰類說 東史節要 曹伸의 謔聞鎖錄 周世鵬의 竹溪志序 등에 言及되어 있는 「題學宮」詩도 安珦이 별세한 지 133년 후인 世宗 21년(1439)의 實錄에는 明나라 使臣 張溥가 지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 文獻學的인 검토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이다. 여기에서 安珦의 朱子學 傳來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白頤正이 元나라에서 還國할 때 程朱性理書를 가져왔다는 연대는 安珦이 별세한 후가 된다. 白頤正이 程朱性理書를 가져오기 전에 安珦은 朱子를 景慕하였고 朱子の 호인 晦菴을 본따서 자신의 호까지 「晦軒」이라고 했다는 高麗史의 기록만으로도 우리 나라 최초의 朱子學 傳來者는 安珦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朱子書를 한번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景慕할 리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門人에서 만든 年譜라도 과장적인 표현은 있을 지라도 사실 무근의 것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朱子學을 安珦이 傳來했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으나 보다 본격적인 程朱性理學은 白頤正에 와서 전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忠肅王 1년(1314) 6월에 安珦의 아들 安于器와 權溥 李瑱 등에게 命하여 成均館에서 程朱性理의 新書를 考閱하게 하고 經學을 시험했다.¹⁶⁾고 하는데 이 해가 李齊賢이 28세로 그의 年譜에 白頤正의 性理學을 제일 먼저 師受했다고 하는 때이다.

이와 같이 安珦에 의하여 朱子學이 처음으로 전해지고 白頤正에 의해서 보다 본격적인 程朱性理學이 들어와서 朴忠佐 李齊賢으로 이어진다면 다음의 學統은 누구에게로 전해지는가. 먼저 安珦의 門人을 보면, 晦軒先生年譜卷六 門人錄에 ① 權溥 ② 禹倬 ③ 白頤正 ④ 李瑱 ⑤ 李兆年 ⑥ 辛葳

16) 晦軒先生年譜(硯山本)

⑦ 李晟 ⑧ 尹宣佐 ⑨ 尹安庇 ⑩ 徐禔 ⑪ 許冠 등 11명이다. 여기에 白頤正이 安珣의 門人으로 되어 있으나 安珣보다 4살 아래인 白頤正이 과연 그의 門人이었는가 하는 것은 의문스럽다. 白頤正의 行狀에 「遊晦軒先生門」이라 했지마는 陶隱은 牧隱과 同門 從遊이면서 「遊牧隱先生之門」이라는 자신의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白頤正과 安珣도 직접 배웠다가보다 서로 從遊하면서 淵源으로서만 제자가 아니었던가 한다.

다음 白頤正의 門人으로는 「彝齋先生實記」 門人錄에 ① 朴忠佐 ② 李齊賢 ③ 李穀 ④ 李仁復 ⑤ 白文寶(이상 白頤正 門下의 五君子라고 함) ⑥ 白弘正(白頤正의 세째 아우) ⑦ 李達尊(白頤正의 사위임) ⑧ 閔宗儒 ⑨ 金永暎(白頤正의 처남임) ⑩ 金永熙 ⑪ 安牧(安于器의 長子 安珣의 孫임) ⑫ 白天藏(白頤正의 族姪) ⑬ 吳孝冲 ⑭ 金光轍 ⑮ 金光載 ⑯ 張純 ⑰ 任子松 ⑱ 任子順 등 18명으로 되어 있다.

이 분들은 모두 高麗末 安珣과 白頤正의 다음 세대의 學者이자 文人들로 性理學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과 朱子學的인 實踐倫理를 중시했다는 것은 도처에 散見되고 있다.

그러므로 高麗末期에 傳來된 程朱學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傳來 단계로 安珣은 朱子學을, 白頤正은 보다 본격적인 程朱性理學을 각각 전해온 시기이다. 둘째 傳受 단계로 權溥 朴忠佐 李齊賢 등이 安珣 白頤正의 門下에서 程朱學을 師受하기는 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보급되지는 못했다. 세째 보급 단계로 이 시기에는 주로 程朱學 傳受者의 門下에 해당하는 세대로 李穡은 成均 大司成으로 鄭夢周 李崇仁 등은 學官으로 있으면서 程朱學을 가르치고 연구하여 많은 보급이 행해지는 시기이다. 다음은 이 시기의 문학 양상을 항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V. 程朱學 傳來 以後의 麗末漢文學

1 民俗歌謠에 대한 새로운 認識

高麗는 蒙古의 侵入으로 蒙古에 대한 저항의식과 함께 民族自主意識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朱子學이傳來되자 朱子學的인 史觀 내지 人生觀은 당시 新進士大夫들에게는 적지 않은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宋나라는 異民族인 遼金과 긴박한 관계 속에서 存續했기 때문에 斥邪衛正이나 大義名分 民族意識 등이 강화되었다면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당시 고려말의 지식인들에게는 朱子學이야말로 民族自存의 理念 追求를 위한 새로운 학문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白頤正의 學問을 제일 먼저 師受했다는 李齊賢의 史觀은 春秋와 朱子學的인 史觀이라는 것은 이미 논의되었다.¹⁷⁾ 春秋가 魯의 역사이기 때문에 魯의 독립성을 강조하듯이 고려의 사대부들은 밖으로 大義名分으로 元을 인정하더라도 안으로는 民族自主性을 더욱 合理化할 수 있는 學問的인 뒷받침이 되었을 것이다. 柳淸臣 吳潛 등이 元나라 都省에 上書하여 高麗에 省을 두기를 청했을 때 李齊賢은 四百年 王業을一朝에 廢絶하여 社稷에 主人이 없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高麗의 國號를 존속시켰던 것이다.¹⁸⁾

李穀의 「代言官請罷童女書」에서도 四方의 變반들은 風俗이 자자 다르니 굳이 중국과 같이 하려면 情이 순조롭지 못하다고 하면서 지금 세상에 君臣과 民社가 있는 곳은 다만 三韓뿐이라고 한다.¹⁹⁾ 또 「送揭理問序」(稼亭集)에서도 揭以忠이 四海가 한 집안처럼 되었는데 어찌해서 중국의 법이 고려에는 행해지지 않는다고 묻자 李穀은 高麗는 옛 三韓의 땅이므로 風氣와 언어가 중국과 같지 않으며 衣冠 典禮가 하나의 법이 되었으니 秦漢 이래로 우리 민족을 신하로 삼지 못했다고 한다.

이러한 意識을 갖고 있는 麗末文人들은 우리의 民俗歌謠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었다. 安珣 年譜의 46세조 忠烈王 14년(1288) 4월에 群臣의 宴會가 있었는데 閱瀆는 「新曲」을 지었다고 하고, 역시 62세조 忠烈王 30년(1304) 6월에 大成殿이 이루어지고 孔子 眞像을 봉안했는데 王이 成均館에 나아가니 七管諸生이 冠服을 갖추어 입고 길에서 맞이하여

17) 金哲坡, 益齋 李齊賢의 史學(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產業社, 1975)

18) 「高麗史」列傳 23 李齊賢

19) 「高麗史」列傳 22 李穀

歌謠를 올렸다고 한다. 이 「新曲」과 「歌謠」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마는 아마 漢詩體일 것으로 생각되나 音樂的인 用語를 쓰고 있는 것만으로도 흥미로운 일이다.

다음에 李齊賢은 우리 俗謠를 소재로 「小樂府」를 지었다. 詩經의 15 國風은 風俗을 살피고 政治의 得失을 상고하기 위해서 採詩官을 두어 그들이 채집한 것을 孔子가 刪定하고 朱子가 다시 註釋을 붙인 것이다. 「風」이란 본래 民俗歌謠의 詩로 나라마다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樂府詩도 대부분이 民間歌謠를 채집한 것이었다. 李齊賢이 小樂府를 지으면서 이 曲이 극히 鄙陋하지는 民風 時變을 알 수 있다고 한 것은 朱子學의인 문학관에 영향받은 것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李齊賢의 文學을 이은 李穀도 「觀民風」「進民謠」등, 詩를 觀風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扶餘懷古」라는 詩에서는 溫祚王 탄생 설화를 詩化했고, 安軸의 「關東別曲」까지 詩의 소재로 나타난다. 李穀의 아들인 李穡은 「驅離行」(牧隱詩 21) 「端午石戰」(牧隱詩 29) 「端午日擊毬前例也」(牧隱 29) 「觀擊毬」(牧隱詩 8)과 같이 우리 民俗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 「偶記俚語」(牧隱詩 19)에서는 俗談까지 詩語로 사용하고 있다. 曹伸은 그의 「謏聞瑣錄」에서 牧隱은 「多用俚語」라 하여 여러 가지 例를 들어 지적하고 있다.²⁰⁾

이러한 경향은 李崇仁에도 많은 例를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하나만 例를 들어보기로 한다. 「11월 17일 밤 切益이 부르는 新羅 處容歌를 들으니 聲調가 悲壯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느끼있게 함」. (陶隱詩 2十一月十七日夜 聽功益新羅處容歌聲調悲壯令人有感)이라는 詩에

깊은 밤 신라의 곡조
술잔 멈추고 함께 듣노라.
소리는 옛 악보 그대로인데
기상은 당시를 상상케 하네.
지는 달은 성위에 가깝고

20) 洪萬宗, 「詩話叢林」 夏

슬픈 바람은 나무끝에 불어오구나.

끝없이 회포 슬퍼단지니

切益은 어찌해서 이런고

(夜久新羅曲 停盃共聽之

聲音傳舊譜 氣像想當時

落月城頭近 悲風樹梢嘶

無端懷抱惡 切益亦何爲)

라는 處容歌를 듣고 지은 詩가 있다. 이와 같이 당시의 文人들은 모두 우리의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진 例를 볼 수 있다. 이러한 思潮가 우리 時調文學까지 탄생시킨 원인이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2. 忠孝烈 思想의 深化

忠孝烈은 高麗末 宋儒學 傳來 이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新羅時代에도 忠孝烈의 예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宋儒學이 傳來된 후, 權溥에 의해서 孝行錄이 편찬되고, 그의 사위인 李齊賢이 贊을 붙이고, 曾孫인 權近이 「孝行錄後序」를 써서 孝를 통해서 化民 成俗을 강조했다.

高麗史 忠義列傳에 6人, 孝友列傳에 16人, 烈女傳에 12人이 기록되어 있고, 高麗朝의 廬墓는 成宗朝에 보이기도 하지만 고려말에 오면서 많이 나타난다. 鄭夢周가 처음으로 土庶人으로 하여금 朱子家禮를 모방하여 家廟를 세우고 祖先의 제사는 받들게 했다고 하며, 자신도 廬墓를 살았다.²¹⁾

그러던 文學作品을 통해서 이 忠孝烈에 대한 사상을 찾아보기로 한다. 이 忠孝烈에 대해서는 李穀에 와서 이론적인 면으로 深化되고 있는 듯하다. 먼저 「論」의 例로 「趙苞忠孝論」(稼亭集 1)에서 漢의 趙苞가 遼西를 지키고 있을 때 사람을 시켜서 그 어머니를 맞아오게 했는데 鮮卑가 침략하여 그 어머니와 妻子를 빼앗아 人質로 싣고 공격해 왔다. 趙苞는 울면서 “전에는 母子였지마는 지금은 임금의 신하가 되었으니 의리상 私恩을 돌아보아 忠義를 무너뜨릴 수 없다”하고 趙苞는 나아가 〔적을 격파시켰는

21) 「高麗史」列傳 30 鄭夢周

테 어머니와 妻는 적에 살해당했다. 趙苞는 나라의 녹을 먹으며 난을 피하는 것은 忠臣이 아니오 어머니를 죽게 해 가며 義를 온전히 했으니 孝가 아니라 하고 피를 토하고 죽었다. 이것을 두고 忠孝 두 가지 모두 획득했다고 하나 李穀은 先後本末에 있어서 未盡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說」에 대해서 보면 역시 李穀의 「杯羹說」이 있다. 漢高祖 劉邦이 項羽와 천하를 다룰 때, 項羽가 劉邦의 아버지 太公을 組上에 올려 놓고 네가 항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자 劉邦은 자기 아버지를 살거든 자기에게 국 한 그릇이라도 달라고 한 것을 가지고 이 盃羹說을 지은 것이다. 아무리 劉邦이 승부에만 계획했다고 하나 순임금처럼 자기 아버지를 업고 도망가 숨어살지는 못할망정 자식의 입에서 아버지의 국을 한 그릇 달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는 것이다. 舜임금의 孝에 대해서는 權溥의 孝行錄에 「大舜象耕」이라고 제일 첫머리에 나온다. 李穀의 이 글에서도 舜임금의 孝行의 표준으로 삼은 듯하다. 이러한 內容은 그의 아들인 李穡의 「遁村記」(牧隱文稿 1)에서도 인용하고 있다.

다음에 「臣說」이 있다. 신하에는 權臣과 重臣이 있고, 忠臣 直臣 姦臣 邪臣이 있다는 것을 들고 爵祿과 功業보다는 백성에 원망을 받지 않는 신하가 되어야 한다고 변설했다.

「傳」에 대한 例로 李穀의 「竹夫人傳」을 들 수 있다. 이것은 貞節을 內容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이다. 우리 나라의 貞節問題에 대해서는 三國史記 都彌說話를 비롯하여 高麗史 烈女傳에 12이나 실려 있다. 고려 高宗 이후 蒙古의 침구와 왜구의 침입으로 민족의 수란이 심해지자 여기 필연적으로 烈女가 많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李穀과 같이 假傳을 지어서 세상을 깨우친 것은 그의 사상의 발로라고 할 것이다. 같은 假傳이라도 「麴醇傳」은 술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이는 作者 林椿이 竹高七賢 중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나라 例는 아니지만 宋의 張文潛의 「竹夫人傳」은 失寵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반해 李穀의 것은 貞節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은 그 시대 사조의 반영이라고 할 것이다.

3. 濂洛風 詩의 出現

高麗末에 程朱學이 들어오므로 해서 우리 文學思想의 배경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첫째 文學觀에 있어서 朱子學的인 文學觀이 대두되었는데 이것은 필자도 이미 다른 논문에서 言及했다.²²⁾ 이 문학관이 달라짐에 따라 文學의 內容面에도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예가 바로 濂洛風 詩의 出現이다. 安珦의 「題學宮」詩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明人 張溥의 作品이라는 說이 있으니 그만 두기로 하고, 白頤正의 「燕居」詩(東文選 20권)를 살펴보기로 한다.

작은 집 쓸쓸히 열 팔꿈치 남짓한데,
향불 피우고 고요히 聖人의 글 읽네.
人爵을 그만 두고 天爵을 얻었으니
情欲은 가을 수풀에 날로 점점 멀어지네
(矮屋蕭條十肘餘 焚香靜讀古人書
自從人爵生天爵 情欲秋林日漸疏)

白文寶가 지은 그의 行狀에서는 이를 詩意가 淸眞하여 참으로 有道者의 말이며 그 安分窮理의 학문과 湛虛純一의 氣像을 상상해 볼 수 있다고 높이 평가하기로 했다. 晩年에 시골집에 隱居하여 지었다고 하는데 老年期에 安分樂道로 焚香窮理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음 「理學의 祖」라고 崇仰받는 鄭夢周의 作品에는 性理學的인 詩가 4首 남아 있는데 「讀易」「觀魚」「冬至」「浩然」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이 詩들을 일일이 예를 들어 분석해 볼 수 없지만 「讀易」는 마치 邵康節의 「觀易吟」「冬至吟」「天道吟」과 詩想이 통한다. 특히 「讀易」에서는 「我方包乾坤 優遊三十六宮春」이라는 句節이 나오는데 이것은 邵康節의 「觀物吟」의 끝 句節인 「天根月窟閑往來 三十六宮都是春」이라는 그대로이다. 「湖中觀魚」詩에서는 中庸의 鳶飛魚躍의 至理를 「冬至吟」에서는 剝復陰陽의 造化를 소재로 한 詩이다. 또 「浩然卷子」詩에서는 孟子의 造然之氣와

22) 李炳赫, 高麗末期의 漢文學 研究—三隱을 中心으로—(東亞大院 論文集 1, 1977)
稼亭의 思想과 그 文學(釜山工專論文集 20, 1979)
陶隱文學考(「漢文學研究」, 정음사, 1981)

中庸의 妙理를 읊은 濂洛風의 詩이다.

이러한 경향은 元天錫의 詩에도 잘 나타난다. 그의 「次康節邵先生春郊十咏」詩(耘谷詩史 卷四)에 ① 春郊閑居 ② 春郊閑步 ③ 春郊芳草 ④ 春郊花開 ⑤ 春郊寒食 ⑥ 春郊晚望 ⑦ 春郊雨中 ⑧ 春郊雨後 ⑨ 春郊舊酒 ⑩ 春郊花落 등 10 首를 지으면서 그는 康節의 風味를 상상하며 이 詩를 지었다고 自序를 붙여 놓았다. 閑靜한 詩意를 엿볼 수 있는 詩이다. 이외도 그는 「次山人角之詩韻」에서 「程子·朱子와 말고삐를 내어찌 나란히 하랴」(程朱並轡吾何敢)하고 註에 「來詩에 程朱와 고삐를 나란히 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來詩有程朱並轡之語故云)는 것을 보면 당시 程朱에 대한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李崇仁의 「新晴」(陶隱集 4)에서는 詩란 억지로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性靈이나 無心處에서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邵康節의 「閑吟」에서 「詩因偶爾成」이란 말과 통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金宗直은 「靑丘風雅」에서 「豈區區乞靈於古人陳語哉 此公自負之作」이라고 評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秋夜感懷」(10 首, 陶隱集 1)는 探索微妙를 꾀한 朱子の 「齋居感興」(20 首, 朱子全書 4)詩와 同軌의 것이다. 이 10 首를 다 들 수 없으므로 제 9 수째 程朱에 관계되는 1 首만 들어 보자.

하늘이 우리 송나라를 열어
帝運이 文明에 올랐네.
특이한 인물 간간이 나서
나팔 피리 서로 어울리네.
濂溪 근원 길이 열었으니
河水와 洛水 물길 맑았네.
위대하구나 紫陽翁은
일어나 斯文의 명주되었네.
위로는 지나간 성인을 잊고
아래로는 태평을 열었네.
九原에서 다시 살아난다면
말채찍 잡고 평생을 마치리라.

(皇天啓我宋 帝運升文明
 異人乃間出 靈旒送相鳴
 濂洛發源深 河洛分派清
 卓哉紫陽翁 起主斯文盟
 上以繼往聖 下以開太平
 九京如可作 執轡終吾生)

본래 이 詩는 道統을 소재로 한 것으로 孔子를 거쳐 朱子를 斯文의 盟主라고 한 것이다. 朱子를 이렇게 尊慕했을 뿐만 아니라 詩의 氣味는 朱子의 것 그대로이다.

다음에 治隱에 오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많이 나타난다. 그의 詩 13首 중 거의 隱逸의이고 修道的인 作品이다. 그의 「閑居」 詩는 浴沂風舞의 灑落한 胸襟을 엿볼 수 있으며, 「偶吟」은 心性을 담은 詩로 朱子의 「觀書有感」 詩를 방불케 하는 詩이다.

V. 結 語

이 글은 程朱學이 우리 나라에 들어온 연대와 경위를 밝히고 이 程朱學을 사상적 배경으로 해서 형성된 麗末漢文學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程朱學이 들어오기 전과 그 이후의 고려 유학의 일반적인 성격부터 살펴보았다. 유교는 본래 司徒라는 敎官에서 나왔는데 처음에는 治人 쪽의 뜻이 강하다가 후에 修己 쪽의 뜻으로 기울어진 듯하다. 고려 시대의 유교도 초기에는 孔子를 받들고 文物制度를 정비하는 基本儒의인 성격을 띠고 있다가, 중기의 武人執權期에 오면 文學儒敎의인 성격이 있으며, 말기 程朱學이 들어오면서 程朱學的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程朱學이 언제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는가를 보면, 朱子學은 安珦을 통해서 들어오고, 보다 본격적인 程朱性理學은 白頤正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생각된다. 白頤正의 기록은 高麗史에, 安珦의 기록은 後代에 만들어진 年譜에 있으므로 安珦의 朱子學 전래 사실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첫째 安珦의 二次入元이

白頤과 同時이며 白頤正의 歸國은 安珦의 별세 후이다. 高麗史에 의하면 安珦은 이 때 이미 朱子의 晦菴을 본따서 자신의 호를 「晦軒」이라 하고 朱子의 眞像을 걸어두고 景慕했다. 이것을 보더라도 朱子書를 한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景慕할 수 없겠기 때문이다. 둘째 後代에 와서 된 年譜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이 正史인 高麗史와 一致하고 있고, 때로는 더 상세히 기록된 것을 보면 아무리 개인 門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과장적인 표현은 있을지라도 완전히 근거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때 程朱學의 傳來는 세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전래 단계, 둘째 傳受 단계, 셋째 보급 단계이다. 安珦이 처음으로 朱子學을 가져온 것은 忠烈王 16년(1290)이다. 이 때는 그의 年一譜에서 보이는 것처럼 「抄」 또는 「錄」했다는 것으로 보아 朱子書를 抄錄해 온 것이고, 다음으로 二次 入元(1298)과 忠烈王 29년(1303)에 博士 金文鼎을 보내어 六經諸子史 購入 등 연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白頤正은 忠烈王 24년(1298) 8월에 入元하여 10년간 머물었다는 기록만 있고 歸國 年代가 미상이다. 꼭 10년만에 귀국했다면 忠烈王 33년(1307)이 되나 入元時 忠宣王을 따라간 것으로 보아 귀국할 때도 忠宣王을 따라 왔다고 하면 2년 후인 忠宣王 1년(1309)으로 12년만에 귀국하면서 程朱書를 가져온 것이 된다. 여기에 傳受 단계에서는 安珦의 門人 11명과 白頤正의 門人 18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程朱學을 일차로 전수받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安珦의 門人 11명 중에 白頤正이 끼어 있으나 安珦과 白頤正은 4살 차이로 「遊晦軒先生門」이라는 것은 「遊學」이라는 뜻보다 「從遊」인 듯하며 淵源으로서는 師弟間일지는 모르나 직접 배운 師弟間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음 세대인 李穡은 成均 大司成으로 鄭夢周 李崇仁 등이 學官으로 있으면서 程朱性理學은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보급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사상적 배경 위에서 형성된 문학은 어떤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을까. 첫째 民俗歌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고려는 풍고침입

이후에 민족의식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마침 朱子學이 들어오자 그의 文學觀의 영향으로 우리 가요에 대해서도 15 國風처럼 自國文學에 새로운 관심을 가진 듯하다. 安珣 年譜에 「新曲」이니 「歌謠」니 하는 말이 있으나 內容은 알 도리가 없고 보다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李齊賢에 와서 이다. 그는 小樂府를 지으면서 民風 時變을 알 수 있다고 한 것은 朱子學의 文學觀 그대로이다. 李穀의 文學觀도 詩를 教化爲主, 觀風의 수단으로 여긴 것은 이와 同軌이며 安軸의 關東別曲까지 詩의 소재로 삼은 것은 모두 민족 문학에 눈을 돌린 예라고 볼 수 있다.

李穀의 아들 李縉은 「驅難行」「石戰」「擊毬」등을 읊고 있는가 하면,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偶記俚語—雀畫傳言鼠夜傳) 등 많은 俗談까지 詩語로 사용하고 있어 고려시대의 속담까지 재료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李崇仁에 와서도 많이 나타난다. 이 시기에 時調文學이 출현한 것도 바로 이러한 풍조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한 것이다.

둘째 忠孝烈思想의 深化이다. 新羅時代에도 忠孝烈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麗末 孝에 있어서는 權溥의 孝行錄 편찬으로 더욱 강화되고 朱子家禮가 들어와 廬墓살이도 많이 나타난다. 李穀은 「趙苞忠孝論」을 지어 孝에 대하여 사상적 이론적인 면으로 深化시키고, 또 假傳인 「竹夫人傳」을 지어 烈에 대해 교훈을 주고 있다.

끝으로 濂洛風 詩의 出現이다. 安珣의 「題學宮」詩는 明使 張溥가 지었다는 說이 있으니 그만두고라도 白頤正의 「閑居」詩는 詞章的인 면을 떠나서 從容한 氣味를 보여주는 것으로 濂洛派의 경향이라고 할 것이다. 鄭夢周의 「讀易」「觀魚」「冬至」「浩然」등은 모두 濂洛派의 性理學的인 作品이며, 元天錫의 「次康節邵先生春郊十咏」이라는 10首의 詩도 이 계열의 作品이다. 李崇仁의 「秋夜感懷」詩는 朱子の 「齋居感興」詩와 같은 作品으로 道統을 소재로 하고 있다. 李朝에 와서 道統을 소재로 한 詩歌나 心性을 소재로 한 作品들은 모두 이 때 사상적으로 싹튼 것이라고 할 것이다.

麗末 程朱學의 傳來 過程과 이 기간의 漢文學을 고찰하려 했으나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질책이 있기를 바란다.